

4월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한다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 등으로 약물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존의 실손보험과 별개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 고령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5개의 병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임신·장애 여부, 흡주·흡연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임신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한다. 도급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임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가 제외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고령층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보험도 심사항목이 같아 가입이 저조했다. 실제로 노후 실손보험 가입거절 사유의 57.4%는 '투약'이었다.

심사항목 18개→6개... '투약 여부' 제외

보험료는 男 3만4230원 · 女 4만8920원

하지만 이번 상품 개발을 통해 고혈압 등으로 약물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 실손

보험의 월 보험료(기본형)는 50세 남성 2만840원, 여성 2만8400원이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3만4230원,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한다는 방침이

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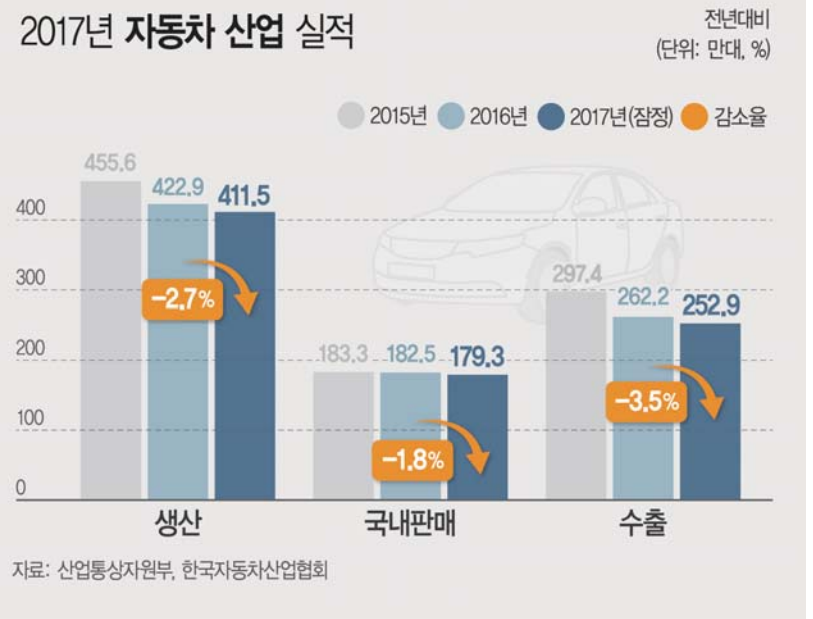
도 국장은 "보험사의 상품출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중에는 단체·개인 실손, 일반 노후 실손 등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시



등푸른생선 드세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고등어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단백질과 DHA 등이 풍부한 고등어, 삼치 등 등 푸른 생선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푸른 생선 Festa'를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매장에서 진행한다.

2017년 자동차 산업 실적



작년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동반 감소

지난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일부 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1만5000대를 생산했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와 일부업체 파업 등으로 수량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252만9000대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417억 달러를 수출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별별로 보면 승용차 중 스포

북 지연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7%, 11.3% 줄었다.

내수는 전년도 개별소비세 인하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9만3000대를 판매했다.

국산차의 경우 대형차의 판매 호조, 소형SUV 시장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경차시장 위축, 중소형차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 감소한 154만2000대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폭스바겐 아우디의 판매 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벤츠, BMW, 일본계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감소에도 친

산업통상자원부, '수요둔화·일부 업체 파업' 영향

SUV·대형차 수출 비중 증가...친환경차 수출로 악진

초유틸리티 차량(SUV) 및 대형차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SUV는 글로벌 수요 증가로 전체 수출 비중의 절반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차 및 중소형은 감소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러시아 지역은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인 반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 위축, 중동·중남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체 수출은 감소세에 있다.

EU 지역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전년 대비 자동차 수출이 30.1% 증가했다. 러시아도 유가 상승을 통한 경기회복으로 51.5%나 수출이 늘었다.

미국은 자동차 시장 감소, 완성차 업체 간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중동과 중남미는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회

환경차의 판매·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각각 42.2%, 126.6%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생산(-33.9%), 내수(-17.5%), 수출(-40.4%)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생산은 기저효과와 일부업체의 노조 파업 및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9% 감소한 28만7311대를 생산했다.

내수도 일부업체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공급 부족, 전년도 내수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7.5% 감소한 15만3504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파업에 따른 공급 부족, 해외 재고 조정 등으로 수량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감소한 17만7897대, 금액 기준으로 34.2% 감소한 29억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뉴스시

알바 고용주 10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에 폐업 고려"

일부 연봉 동결·원가상승·단가인상 고려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접수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친다고 답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신중하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도 23%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귀사의 사업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기존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기존 알바생 퇴사로 인한)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77%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계획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이나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지역업자는 17%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의 영향은 업종별로도 명암이 갈렸다. 총 12개 업종 중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등 참여자 비율이 높은 총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음료였다.

"기존 알바생 축소" 및 "가족 경영 등을 통한 인원 충당"은 유통·판매 업종에서, "신규 알바생 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 업종에서,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부문이었다.

뉴스시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